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에서 당화혈색소와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연관성

최준선

가천의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1. 연구주제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에서 혈당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정도와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실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목적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다양한 급·만성 합병증을 야기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질환으로 최근 당뇨병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 당뇨병은 전신질환 중 구강내 변화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질병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염의 발생률을 높여 충진 및 상실치아수를 증가시키고 이외에도 구강건조증, 칸디다증 및 작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내 당뇨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정상범위로의 혈당조절과 함께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철저한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혈당조절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 중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에 비하여 당뇨조절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7%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혈당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및 운동요법 등의 자가관리 행위로, 이러한 요법들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성공적인 혈당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강내 존재하는 염증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혈당을 정상화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의 당화혈색소의 정도와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실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혈당조절을 향상시키는데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 소재한 내과 및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여성 환자 9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0 ± 10.0 세이었다.

3.2. 연구방법

혈액을 채취한 후 Axis-shield사 제품인 NycoCard[®] READER II를 이용하여 당화혈색소를 정량하였고, 치과위생사 1인이 개별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령과 당뇨병 유병기간 및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실천도(치과의료서비스 이용도, 구강위생관리도)를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67.8%는 당화혈색소가 7.0%이상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편이었으며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수록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52.2%가 3년 이상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고, 93.3%와 92.2%에서 각각 정기구강검진과 정기치석제거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87.8%는 당뇨병 유병 기간 동안 치석제거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치주조직을 위해 반드시 잇솔질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인 자기전 잇솔질 시행율이 4.4%밖에 되지 않았고, 치간 사이의 치면세균막 제거로 치은의 염증 발생율을 감소시켜주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인 치실의 이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화혈색소와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고, 최근 치과 방문 후 경과시간이 오래되었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않고, 당뇨병 유병기간 중 치석제거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혈당조절이 안 되고 있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구강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 2-3개월마다 주기적인 당화혈색소 측정과 혈당조절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혈당조절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주조직염의 예방과 이의 조기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교육하여야 하고, 구강건강을 위하여 당뇨환자 스스로 행하는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